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절기와 행사를 정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제정된 것이 교회력(教會曆)입니다.

이 교회력은 대림절(待臨節 Advent)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해당되며 매년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년은 12월 3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대림절은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대림절 성탄 축하예배 일정 안내

2023년 12월을 시작하며 주님 나신 날(성탄)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교회는 대림절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다양한 행사와 예배로 성탄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성탄을 축하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성탄 축하 절기 찬양

17일(주) 찬양예배 시 할렐루야찬양대의 성탄 축하 칸타타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2. 성탄 축하 특별행사

24일(주일) 찬양예배 시 교회학교 어린이들

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성탄 축하 특별행사가 24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립니다.

3. 성탄 새벽예배 - 25일(월) 오전 5시 본당

주님 나신 성탄을 축하드리는 성탄 새벽예배가 25일(월) 오전 5시 본당에서 열리며 베들레헴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4. 성탄 축하예배 - 25일(월) 오전 11시 본당

주님 나신 성탄절 아침 11시 본당에서 성탄 축하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예배 시 성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다음 주 2024 섬김위원 임명

3부 예배 후 교구총회

다음 주 I·II·III부 예배 시 2024년 교회 섬김위원을 임명합니다.

2024년도 모든 섬김위원들은 2024년 1월 1일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3년도 섬김위원들은 12월 말까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12월 한 달 동안 모든 업무를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교구총회를 갖습니다. 교구일꾼들(교구장, 부교구장, 간사)은 필히 참석 바랍니다.

다락방 리더훈련 겨울방학

다락방 리더훈련이 12월 13일(수)부터 2024년 3월 6일(수)까지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기간 동안 다락방장과 부다락방장은 다락방원들을 잘 돌아보시고, 유고시에 즉시 교구목사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70인전도대 겨울방학

70인전도대는 흑한기를 맞아 12월 3일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방학을 가집니다.

방학동안 영적으로 충전하셔서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히 12:1-3)



손달익 위임목사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신앙인의 삶을 농부, 군인, 경주자에 자주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는 종종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 권고합니다. 빌 3:12에서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의 종점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도 십자가라는 목표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운동선수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 대한 해묵은 암살 음모를 알려주는 사람들에

에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하시면서 경주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장엄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끝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며 경주를 마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2절)고 가르칩니다.

1. 무거운 짐을 벗고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릴 수 없고 온 몸이 얽매인 채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이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 무거운 인생 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히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겼고 허다한 죄들은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인생 짐이 무거워 견디기 힘들고 지난날의 죄가 발목 잡을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더 완벽한 표본으로 예수님을 제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단호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고 부모의 장례를 걱정하는 자에게도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지나치게 세상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고 얽매이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입과 각종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편리한 여러 기계들의 도움을 받으며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첨단 삶을 살면서도 마음은 더 무겁고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욕망 상승과 사회적 갈등의 폭증과 정신력의 빈곤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주님께 맡겨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활가분하게 걸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길 떠나는 사람은 눈썹 하나라도 더 뽑고 출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의 짐도 가벼워야 합니다. 좀 더 버리고 좀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짐도, 우리

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굴레들도 모두 십자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담담히 주님을 따라 우리 갈 길을 가야 합니다.

2.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마 26:67)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멸시와 모욕과 조롱은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수치심과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존재와 삶의 의지를 꺾는 악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극한의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모든 것과 비교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월등하신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구약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그 실체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의 탁월함이 증명되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신뢰할만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과 윤리 두 가지가 다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때문에 그들은 이런 합리적 노력을 전력을 다해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

게 혼신의 노력을 진정으로 기울였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문에서의 파문, 고향 마을에서의 추방, 경제 활동의 제약, 지식인 사회와 유대인 지도부로의 진출 등이 거절당했고 견딜 수 없는 모욕적인 처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논리적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견디고 참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님도 먼저 수치를 당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매 맞고 그가 먼저 침 뱉음을 당하고 그가 먼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의 능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표본 삼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라는 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은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우리 갈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3. 낙심하지 말아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할 일 많지만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잡히시자 제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저항했습니다. 주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 26:52). 주님은 당장 하늘의 12군단 천사를 동원하여 이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정리하실 수 있으나 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참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지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요 신비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새 힘으로 도우실 주님을 앙망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주님께 맡겨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활가분하게

걸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길 떠나는 사람은 눈썹 하나라도

더 뽑고 출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의 짐도 가벼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제현 장로
(2023 사명자대회
본부장)

50일간의 사명자대회를 본부장으로 섬기면서 하루하루 저 자신과 가족,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선교지 및 국가를 위해 기도하였던 날들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과 기도했던 주변 상황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돌아보니 별로 달라진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지만 합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 어머니께서 콩나물시루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다보면 며칠 지나 콩나물이 벗질재를 뚫고 쑥 올라오던 것처럼, 기도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미숙한 본부장의 부족한 부분을 묵묵히 채워주신 섬김위원들과 특별새벽기도를 인도해 주신 위임목사님, 릴레이 자유키도와 특별새벽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어 사명자대회 실적보고를 드립니다. 총 7주 동안 릴레이 자유키도에 동참한 인원은 연인원 4,332명(교회출석 681명, 불출석 3,943명), 일평균 103명

이 참석하였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특별새벽기도에 참여자는 누계 1,465명(출석 1,195명, 실시간 온라인 270명)이었고, 일평균 2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 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명자대회의 예산 646만원 중, 홍보물 제작에 127만원, 교육부서에 61만원, 조식 준비 153만원 및 감사 떡 76만원 등 4,174,410원을 집행(집행율 64.6%)하였고, 잔액 2,285,590원은 교회에 반납하였습니다.



가을 오순절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일주일동안 참석하신 많은 성도와 아침식사를 준비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교회에 등록된 새신자의 교회 정착을 도와주는 새가족부(부장:노제현 장로, 지도교역자: 박미라 전도사)에서는 12월 17일 주일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손달익 위임목사님을 모시고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료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를 갖게 됩니다.

이 환영회에는 위임목사님과 수료자들의 소속 교구장, 지도교역자, 다락방장 그리고 그간 수고하신 담당교사들이 참석하여 교육수료를 축하하고, 서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수료자들이 앞으로 서울교회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생활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의 출석을 원하는 새가족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새가족부 교육은 총회국내선교부에서 출간한 새가족 교재를 중심으로 서울교회 소개, 하나님과 나, 예수님, 믿음, 구원, 교회생활, 교회정착을 주제로 5주간 시행됩니다. 새가족부는 매 주일 1부 예배 후 602호에서 교사 서희 숙 권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하여, 박미라 전도사의 강의, 그리고 담당교사의 1:1 면담으로 마치게 됩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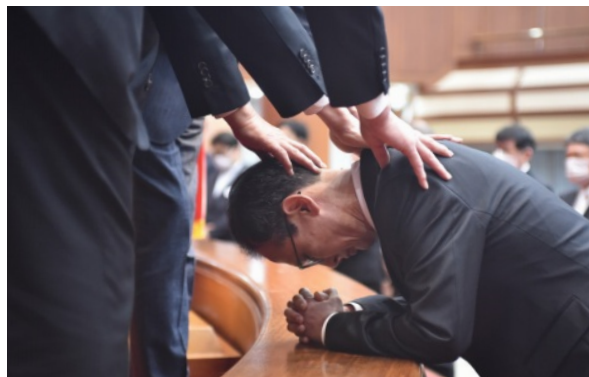
또한 부장과 지도교역자 그리고 15명의 교사는 매주 교사회의를 통해 70인전도대가 활동을 재개하므로 앞으로 서울교회를 찾으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의 정비,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과 수료 이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교회 부서 연계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 교사 일동



지난 4월에 있었던 새가족 환영회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우리 교회 16대 장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새로 임직받으신 백도환 장로님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사진: 오명걸 안수집사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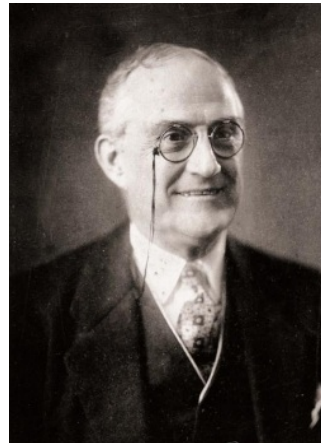
광주 송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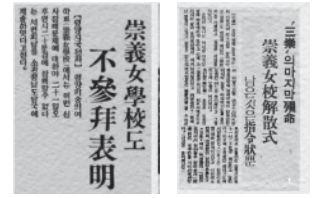
광주 수피아여학교



야스타케 다다오(安武 直夫)



조지 새넌 매쿰
(George S. McCune)



평양 송의여학교의 신사불참배 표명 기사(왼쪽)와 폐교원(오른쪽)



일제의 평양 송의여학교 폐교지령문서

1868년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천황(天皇)은 신으로 인식되었다. 1889년의 “대일본제국헌법”을 보면 천황은 신성한 불가침의 존재이며 만세일계(萬世一系, 영원히 이어지는 핏줄)의 통치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 현인신(現人神,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 신)인 천황을 정점으로 조직화된 지배체제와 이념을 천황제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의례가 신사참배였다.

신사참배 강요는 1910년대부터 있어왔다. 1910년대에는 주로 공립학교 학생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다 1920년대 들어오면서 사립학교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때 국내의 언론과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사립학교의 신사참배는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 일제가 대륙침략을 재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쟁을 다시 시작한 일제 입장에서는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 강력한 통일성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1932년 1월 미국 남장로회가 운영하던 광주의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가 신사참배나 예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9월에는 평양에서 송실전문학교를 비롯한 10개의 기독교계 학교가 일본 신도식으로 치러지는 ‘만주사변 1주년 기념 전몰자 위령제’에 불참하여 문제가 되었다. 기독교계 학교들의 저항은 계속 이어졌다. 이는 천황을 신으로 받드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기독교의 양심이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35년부터 일제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기독교계 학교들이 신사참배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장들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11월 평안남도지사 야스타케 다다오(安武直夫)는 지역의 초등학교장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마치면서 평양신사를 참배하게 하였는데 기독교인 학교장들이 빠져나가 참배하지 않았다. 이에 야스타케는 중등학교장 회의를 소집

하고 참석자들에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평양신사에 참배할 것을 강요했다. 당연히 기독교 학교장들은 교리상 따를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는 기독교계 학교의 신사참배 거부를 엄격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는 경고와 설득을 방침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서면으로 신사참배 여부를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학교장 파면과 폐교도 불사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송실학교 교장 매쿰(George S. McCune)과 송의여학교 교장 대리 스눅(V. L. Snook)은 서면을 통해 기독교의 교리와 양심상 자신들 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참배를 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매쿰과 스눅은 1936년 1월 학교장직에서 파면되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1937년 남장로회 소속의 학교들이 폐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의 수피아여학교와 송일학교, 목포의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부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하자 학교에 돌아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미국 북장로회와 남장로회는 더 이상 본래의 선교목적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장로회는 교육선교 철수를 결정하고 학교 폐교 수순을 밟았다. 북장로회의 학교들은 폐교를 안타까워한 한국인들에게 인계되기도 하였고 남장로회의 학교들은 그대로 문을 닫았다. 1933년을 기준으로 장로회 선교회가 운영하던 사립학교는 총 35개교였지만 1938년에는 13개로 줄어들었으며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하게 되는 1940년에는 모든 학교가 문을 닫거나 이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인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였다. 평양의 박관준 장로는 1937년 송실과 송의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려있다는 기사를 읽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조선 총독에게 지속적으로 신사참배 강요의 부당성을 경고하는 편지와 청원서를 보내다 여러 차례 구금을 당했다. 그는 신사참배 문제로 보성중학교 교사를 그만둔 안이숙과

함께 1939년 아예 일본으로 건너가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3월 24일 일본 중의원 회의장에 들어가 신사참배 강요 중단 건의서를 단상에 던지며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외쳤다. 귀국 후에도 신사참배반대운동을 계속하던 그는 일제에 검속되어 옥사하였다.

신사참배반대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평남의 주기철, 평북의 이기선, 경남의 한상동과 주남선, 전남의 손양원, 함남의 이계실, 만주의 박의흠 등 중심인물도 전국과 해외에까지 퍼져있었다. 신사참배반대운동으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투옥되고 200여 개의 교회가 폐쇄되었고 순교에 이른 이도 50여 명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한국인들의 황국신민화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독교였다. 1938년의 총독부 경무국의 자체 보고서는 기독교를 매우 경계하고 있다.

“예수교도는 시국에 대해 매우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신사참배를 비롯한 일련의 국가 행사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명에 어긋난다고 하여 이를 기꺼워하지 않는다. 이들은 또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내세워 불경죄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 또는 그릇된 평화관에 사로잡혀 반전(反戰) 연사를 함부로 하는 등의 사안이 곳에 따라 발생하여 후방 국민의 정신적 결속을 문란케 하는 사례를 야기하였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일제는 기독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겼고 1938년 2월에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을 수립하며 더욱 강하게 압박해 이제는 교회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결국 1938년 9월 장로회총회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하면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파가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였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것은 1944년 교단이 아예 폐쇄된 동아기독교(현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유일했다.

- 알려드립니다 -

타 교회에서 부고문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문자는 웹사이트 바로가기 링크가 있어서 무심코 누르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발송하는 부고문자는 절대로 웹사이트가 들어간 바로가기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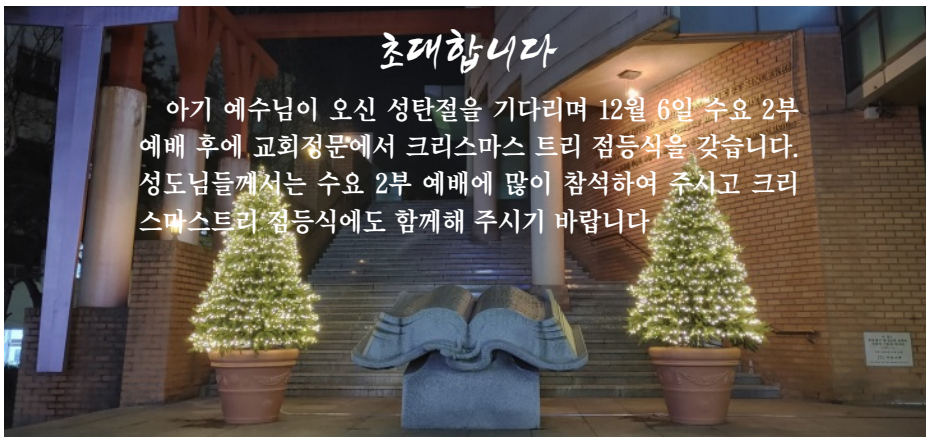
연주회



- 8교구 장윤식 안수집사 클래식기타 리사이틀
12월 16일(토) 오후 5시 제이아츠홀(방배역 1번 출구)
* 관람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조원영 목사(8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식사 제공

- 9교구 송인수 안수집사-고 박한옥 집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드리며)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2월4일	월	엡 5-6	
12월5일	화	빌 1-4	
12월6일	수	골 1-4	
12월7일	목	살전 1-5	
12월8일	금	살후 1-3	
12월9일	토	딤후 1-6	
12월10일	주일	딤후 1-4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12월4일	월	행 14-18	
12월5일	화	행 19-23	
12월6일	수	행 24-28	
12월7일	목	롬 1-6	
12월8일	금	롬 7-12	
12월9일	토	롬 13-16, 고전 1-5	
12월10일	주일	고전 6-12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대림절 첫째 주간에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하심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소서.
2.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파송선교사와 후원교회에 성령의 위로를 더하소서.
3. 눈물과 신음이 있는 곳에,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는 곳에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와 회복이, 대한민국에는 복음위에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